

"'깊숙한 포켓'같은 작품하고파"... 국제적 현대미술가 양혜규, 국제갤러리 전시회

September 9, 2019 | 도재기 기자

page 1 of 6



국제적으로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는 양혜규 작가가 최근 작품전 '서기 2000년이 오면'이 열리고 있는 국제갤러리 전시장에서 페이스 페인팅을 한 채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doolee@kyunghyang.com

조각을 기반으로 설치미술 작업을 하는 양혜규 작가(48)는 한국을 대표하는 현대미술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계적인 미술관과 국제전시회에 초대를 받는다. 이름난 평론가들이 비평을 하고, 영국 테이트 모던·뉴욕 현대미술관(MoMA)·프랑스 퐁피두센터 등 주요 미술관이 그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한국에서 조각을 전공하고 1994년 독일로 건너간 그는 자신만의 작품세계를 구축하고 활발한 작품활동으로 세계적으로 뜨거운 주목을 받는 작가가 됐다.

양혜규 작가의 작품전 '서기 2000년이 오면'이 국제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다. 삼성미술관 리움에서의 전시 이후 4년 만의 국내전이다.

전시회는 블라인드 구조물에 바퀴를 달아 운동성을 부여한 '솔 르윗 동차(動車)', 둥그런 구의 표면 전체를 작은 방울들로 뒤덮어 천장에서 늘어뜨린 조각 '소리 나는 운동'을 중심으로 펼쳐졌다. 미니멀리즘·개념미술을 이끈 작가 솔 르윗을 오마주한 '솔 르윗 동차'는 블라인드 연작이다. 작가는 10여년 전부터 개방과 폐쇄라는 성격을 동시에 지닌 블라인드를 작품에 적극 도입하고 있다. 방울 연작인 '소리 나는 운동'은 무늬 변화와 방울 소리라는 시·청각이 공존하는 조형물이다. 작가는 수년 전부터 수공예적·주술적 인상이 짙은 방울들도 다양하게 활용해오고 있다. 이들은 관람객이 움직이고 둘러볼 수 있는 관람객 참여 작품이다.



양혜규 작가의 작품전 '서기 2000년이 오면'의 전시장 전경. 사진 안천호. 국제갤러리 제공.

작가는 전시장을 과거와 현재·미래가 뒤섞인 시간, 무더진 감각을 날세우는 공간으로 만들었다. 입구에는 장밋빛 미래를 담은 채 1982년 발표된 가수 민해경의 노래 '서기 2000년'이 흘러나오고, 작가가 어린시절 동생들과 그린 그림으로 상상력이 돋보이는 '보물선' 복제본도 걸려있다. 전시장 벽은 번개부터 방울·마늘·의료 수술로봇·인공숲 등 고대부터 최첨단 현대산업문화와 연관된 사물들이 담긴 벽지작업이, 바닥은 장기판 작업 위에 향기가 나오는 짐볼들이 놓였다. 천장에서는 남북정상 '도보다리 회담' 당시 중계영상에서 추출한 새 소리가 울린다. 또 프랑스 작가 마르그리트 뒤라스와 작곡가 윤이상의 연대기를 편집한 작업 '융합과 분산의 연대기-뒤라스와 윤'도 있다. 최근 해외 전시에서 선보인 작품들이 많다.

작가는 시대와 지역을 넘어 연관성이 없어보이는 사물·인물·사건 등을 조합·병치·중첩시키는 "이형조합"에 관심이 많다. 작가만의 조형의식으로 빚어진 이형조합은 충돌이나 조화, 혼돈 등 미묘한 파장을 낳아 특별한 경험을 하게한다. 스스로 '홈리스'로 자처하는 작가의 작품에선 시공을 넘나들며 영혼과 감각을 일깨우는 주술사적 면모도 엿보인다. 감각을 총동원시키는 풍성한 전시이면서 한편으론 너무 많은 것을 보여주는 듯한 전시장에서 양 작가를 만났다. 그는 페이스 페인팅을 한 채 인터뷰에 응했다.



양혜규의 '소리 나는 운동 지도'(2019), 니켈 도금된 방울 등, 122×70×70cm. 사진 양혜규스튜디오.  
국제갤러리 제공

-시각과 촉각·청각·후각까지 감각을 자극한다. 의도하는 뜻이 있나?

“10년 넘게 작품에 다양한 감각을 활용하다보니 스물스물 자연스레 녹아든다. 과거엔 향 분사기를 아예 내놓아 드러내고자 했다면 이번엔 짐볼 속에 넣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진화하듯 자연스럽게 조금씩 달라질 뿐이다. 예술가는 기본적으로 감각, 그 활용에 예민하다. 하지만 한편으론 감각에 휘둘리면 안된다는 생각도 많이 한다. 감각을 제 작품의 프로파간다로 쓸 생각도 전혀 없다. 작가로서 저는 기본적으로 화두가 든 주머니를 아주 깊숙하게 만들고 싶다. ‘깊은 포켓’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무엇을 포켓에 넣겠다 안넣겠다 차원을 넘어서서 포켓 자체를 얼마나 깊이 만드는가에 관심이 있다.”

-그러고보니 오감 중 미각만 빠졌는 데, 활용할 생각은?

“하하. 미술을 하다보니 자꾸 갈고닦게 되면서 감각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 사실 미각은 일부러 남겨 놓는다. 개인적으로 오감이 다 예민한 편인데, 하나라도 무뎠하게 놔두자는 생각이다.”

-그동안 작품들에 주술적·신비주의적 상징성이 강한 요소들이 돋보인다. 이전의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배제시킨 근대성에 대한 비판적 성찰인가?

-작품 마다에 다방면의 깊은 연구를 통해 역사적·철학적·미술사적·사회적인 것들을 녹여낸다. '아는 것만큼, 또 알아야 보이는' 작품들이란 평도 있다. 어떻게 공부하나? '관람객의 공부'도 원하나?

"솔직히 공부하는 게 너무 재미있다. 모르는 것 알게되고, 새로 발견하는 것에 대한 희열이 있다. 어마어마한 즐거움이어서 다양하게 열심히 공부한다. 또 제 작업이 애써 녹여내 추상화하는 것이다. 공부는 추상에서 좀 벗어나 나를 해방시키기도 한다. '작품이 어렵다'는 얘기도 있다. 그런데 일부러 어렵게 하지는 않는다. 다만 예술, 창작을 쉽게 풀어내는 것엔 비판적이다. 다양한 관람객, 관람객의 다층적인 이해를 기대한다. 어떤 관람객은 저보다 더 많은 것을 흡수하고, 직관적으로 작품을 관람할 수도 있다."

양 작가의 작품 관련 리서치의 양과 깊이는 꽤 알려져 있다. 2013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근현대 미술관과 역사적 문화공간인 '오베트 1928'에서의 개인전 당시 현지에서 만난 미술관 관계자는 "양 작가의 작품은 작품마다 한 권의 책이 나올 수 있다"고 극찬하며 각 작품마다에 언급할 수 있는 인문사회학적 자료들을 일일이 보여주기도 했다. 작품이 어렵지만 또 그만큼 풍부한 서사를 내놓기도 한다는 것이다. 작가가 강조하는 알거나 뻔하지 않은 '깊숙한 포켓' 덕분이다.

-솔 르윗, 소피 토이버 아르프, 페트라 켈리, 구르지에프, 윤이상 등 작업과 연관된 역사적 인물들의 공통점은? 어떤 선택기준이 있나?

"하하. 나도 어떤 공통점이 있나 하는 생각을 하며 찾아보기도 한다. 아직 하나의 공통점은 못찾았다. 선정의 기준도 없다. 이번 전시회에 뒤라스와 윤이상 작업을 내놓았지만, 사실 지금 내 컴퓨터에 에드워드 사이드, 장 주네 등이 포함된 7명을 중심으로 하던 작업이 있다. 11명까지도 하다가 힘들어 포기했다(웃음). 굳이 작업과 연관된 인물들을 묶어보자면, 현 시스템을 뛰어넘는 디아스포라로 묶을 수 있지않을까 싶다. 작가로서 이 시대를 미술작품으로 해석해내는데 있어 디아스포라에 주목하고 있다. 알다시피 작업도 했다. 제가 생각하는 디아스포라에는 공간·지역 기반의 칸막이식, 통념적 의미를 넘어 무한 확장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 이젠 디아스포라가 던지는 통합성까지도 주목해야 한다고 본다."

양 작가는 그동안 작업에 소환한 인물들과 관련, "그들이 역사를 어떻게 살아갔느냐를 공부하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느냐도 생각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예술가는 작품으로 시대와 삶을 말한다. 이 시대 예술가의 역할은 무엇일까?

“가끔 생각을 하긴 하지만 어려운 질문이다. 저는 지금 길을 찾은 게 아니라 아직 찾고 있는 중이다. 때론 내가 이 것밖에 할 수 없나 하며 큰 회의가 들때도 있다. 다음 기회에 답을 해보겠다.”(2013년 스트라스부르에서 인터뷰 당시 같은 질문에 그는 “새로운 미술로 정치·문화·사회·경제 등 세상 모든 것을 풀어내고 싶다. 세상의 변화를 분석하고 자신만의 세계관을 지닌 미술가, 파급력을 지니는 미술가를 원한다”고 말했다.)

-세계 유수의 미술관들이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미술사적 의미에서 확신이 있기에 소장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물론 빈 곳을 채우는 수준 등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미술사적 의미로 본다. 작가에겐 미술관 같은 기관의 작품 소장은 ‘나무를 심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 100년 뒤에도 누구나 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아쉬운 점도 많다. 전문가들이 있음에도 늘 갤러리, 시장보다 늦다. 작품 가격이 많이 올라서야 겨우 연락이 온다. 소장절차 등의 이유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뭐하고 있나하는 불만이 있다. 아는 작가들 상당수도 그렇다. 실제 친한 스코틀랜드 작가의 경우 정작 그의 주요 작품이 스코틀랜드는 물론 다른 유명 미술관에도 적다. 값이 너무 높으니 소장을 못한 것이다. 작가가 기관의 문을 두드리던 예전과 달리 최근엔 작가들이 아예 재단을 만드는 경우도 많다. 시장이 너무 크고 힘을 발휘하면서 미술관이 약해지는 측면도 있다. 작가와 미술관은 함께 가는 측면도 중요한데...”



작품전 '서기 2000년이 오면'이 열리고 있는 국제갤러리 전시장에서 양혜규 작가.  
이상훈 선임기자 doolee@kyunghyang.com

-앞으로 예정된 전시는?

“이달 말 이스탄불 비엔날레 참여하고, 10월엔 MoMA 재개관전에서 대형 설치작업을 내놓는다. 11월엔 미국 마이애미 배스미술관에서 개인전, 내년 여름에는 영국 테이트 세인트 아이브스 분관에서 작품전을 갖는다. 전시회 뿐아니라 작업을 위한 공부를 위해 세계 곳곳을 오가고 있다(웃음). 한국엔 1년에 두세 차례 정도 오는 것 같다.”

페이스 페인팅을 한 채 전시장에서 인터뷰를 한 작가는 주술사같다는 말에 “작가는 작품으로 말하는데,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게 영 어색하다”며 “한편으론 전시장을 찾는 사람들을 더 즐겁게 하고픈 욕심도 있다”고 말했다.

작가는 인터뷰를 끝내면서 전시 연계프로그램으로 마련된 윤이상의 'Image-영상' 연주회에 참석하기를 거듭 권했다. 통영국제음악재단의 협조로 이뤄지는 연주(20분)는 전시기간 중 3차례(9월 21일, 10월 19일, 11월16일) 진행된다. 다른 부대 행사로는 비평가 이진실·김성원의 강연과 드론 축구비행이 마련됐다. 전시는 11월17일까지.